새해 지구촌 경제와 나라 살림

전 효 찬
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

세계경제는지난4년간양대성장엔진인미국과중국주도의‘고성장-저물가’로 표현되는‘골디락스 경제’를 구가해왔다. 그러나2008년에는미국發서브프라임모기지문제에서 기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역사상 전례 없는 혼돈의 시기를경험했다. 10월이후진행된국제적인정책공조에도불구하고금융기관부실확대및중개기능저하등으로야기된신용경색현상이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지속되고있다. 2009년은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금융위기는 점차 완화되겠으나, 실물경제침체에대한불안은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 이로인해 2009년도세계경제는2008년도예상성장률2.7%보다크게낮아진1.3%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국내외 경기 침체 본격화

선진국 경제는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인해 침체(recession)에근접한제로또는-0.4% 내외의성장에그칠것으로보인다. 현재 미국의 ISM제조업지수, 일본의 단칸지수 등 선진국 기업의업황지수가급격히악화되고있으며, 이러한동시다발적인경기후퇴가선진국상호간수출둔화로이어져경기침체를한층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우려는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금융 불안이 재연되거나 미국이나 유럽의 주택시장 조정이 장기화될 경우 선진국 가계의 소비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그결과향후경기가바닥을치고상승국면에진입한다하더라도급격한V자형회복은기대하기어려우며회복세가궤도에오르기까지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 신흥 시장의 경우 2008년에 대두되었던 디커플링(decoupling)이비현실적인낙관론에그칠것으로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이1 2%p 정도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주요선진국경기 침체로 인해 그동안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신흥 개도국들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내수 시장만으로는 이를 만회할 수없기때문에신흥개도국들의성장률역시하락할것으로보인다. 금융위기 충격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본격적인 경기 둔화를겪음에따라세계경제는2 3년간의조정기간을거친후비로소본격적인회복국면에진입할것으로보인다.

한국경제는 2000년대들어두차례의경기침체를경험하였다. 첫 번째 경기 침체는 2001년으로‘세계 IT 버블 붕괴’라는 대외충격에서비롯되었다. 대외여건의악화로한국경제는수출이급감하면서경제성장률이 3.8%에그치는침체국면에들어갔다. 두번째경기침체는2003년에발생한‘가계버블붕괴’에따른후유증이다. 가계빚에따른신용불량자가100만명을넘어서는 등 가계 부실이 급증하면서 소비가 1.2% 감소하였다. 이러한내수충격으로경제성장률은3.1%로급락하였다.

2009년한국경제의대내외여건은두차례경기침체의복합형이라할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가실물경제에본격적인영향을미침에따라세계경기가 2001년과 같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는2003년의가계버블 붕괴와 같은충격은 아니지만, 내수가장기부진상태에서벗어나지못할것으로보인다. 일자리 창출 수가 평균 10만 명에 그치고있어소비 여력이약화되고있고, 660조원에달하는가계빚이소비회복을제한할것으로예상된다. 내수의다른축인투자에 있어서도경영환경의불확실성이높아져기업의보수적인경영형태가지속됨에따라투자확대를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파급 경로

2009년 중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는

세계경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세계경제	3.7	3.2	2.2	2.7	1.3
미국	2.2	2.3	0.7	1.5	-0.5
유로	2.6	1.7	0.6	1.2	-0.3
일본	2.1	1.0	0.7	0.9	-0.2
중국	11.9	10.4	9.0	9.7	8.1
러시아	8.1	7.8	6.0	6.9	5.0
인도	9.0	8.0	6.0	7.0	6.5
ASEAN	6.3	5.9	4.3	5.1	4.3
중동	5.9	6.2	6.0	6.1	5.0
중남미	5.6	5.2	4.0	4.6	2.3

금리, 환율, 주가 등 금융 변수를 통해 내수가 위축되는 경우와 세계경제의악화로수출이둔화되는 경우로파악할수있다. 자금시장이경색되어유동성이악화되고금리가상승하면경제주체들이필요한자금을제때확보할수없고금융비용이높아지기때문에원활한경제활동을할수없다. 이에따라소비와투자가위축되는현상이발생한다. 원/달러환율이상승하면물가부담이 가중되어 가계의 구매력이 약화되는 한편 수입 단가가 높아져 기업의 제조 원가가 올라가게 된다. 또한, 국가 및 기업의 외채 원리금 상환 부담도 가중된다. 국내 민간 기업의 대외채무만해도 2008년 6월말현재 1,088억달러로외채가급속히 늘어나기이전인 2005년말에비해 60% 이상증가하여상환부담이만만치않은상황이다. 주가가하락하면경제주체의심리가악화될뿐만아니라逆자산효과로인해소비여력이저하된다. 특히 2006년 이후 주식형 펀드 등 간접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주식 투자 인구가 크게늘어났다. 이에 따라개인의 금융 자산 가운데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상승하여 주가 하락이 내수에미치는영향이과거에비해커지고있다. 더구나 주가가 하락하면 기업들이 직접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어이미위축된간접금융을감안할때투자활성화에큰걸림돌로작용할것이다.

한편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세계경기가둔화되면서한국의 수출은크게위축될것으로예상된다. 선진국의경우2009년 경제 성장률이마이너스를기록할것으로보이고, 한국의주요수출국인개도국도경기하강세가본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므로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세계경제 침체가 수출에 미치는악영향이이를상쇄하고도남을정도로크다. 2009년한국의수출증가율은 3.2%로 2003년이후6년간지속되었던두자릿수증가세를유지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낮은 성장률과 정부의 역할

2009년한국경제는글로벌금융불안이라는대외충격과장기적인내수부진으로인해2000년대들어세번째로경기침체를맞을것으로전망된다. 경제성장률은2008년보다1.2% 포인트하락한 3.2%가예상된다. 세계경제의둔화로수출의성장기여도는2008년6.0% 포인트에서2009년에는3.9% 포인트로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수의 성장 기여도도 동 기간 중 2.1% 포인트에서1.6% 포인트로하락할 전망이다. 장기적인소비부진에따라내수회복을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정부는 "금융시장안정대책," "건설대책," "경제난국극복종합대책" 등금융불안완화와실물경기활성화를위해다양한대책을잇달아내놓았다. 미국과300억달러규모의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화 유동성을 확보했고 금융권에 원화 공급을 확대하여신용경색을완화하는조치를시행하였다.

2000년 이후 한국 경제 침체기와 2009년의 비교

구분	2001년	2003년	2009년
대외여건	세계경제침체: 1.5% · 세계IT 버블붕괴 · 미국의 10년호황마감 정세불안: 9·11테러	세계경제회복세: 2.6% · BRICs 고성장 정세불안: 이라크전쟁, 북핵사태	세계경제둔화: 1.3% · 서브프라임부실과글로벌 신용경색 · 미국등선진국경제부진
국내여건	수출감소에따른경기급락 저금리등내수부양책추진	가계부실과카드채위기 부동산가격급등	내수부진지속 부동산시장침체 · 미분양, 금융기관부실
경제성장률	3.8%	3.1%	-
민간소비	4.9%	-1.2%	
고정투자	-0.2%	4.0%	
수출(통관기준)	-12.7%	19.3%	

한편 정부는 11조원의공공 지출 확대, 3조원의세제 지원 등 총 14조원의재정지원을통해일자리창출과내수진작등경기활성화를추진하기로했다. 이를위해2009년예산안을기존안대비 10조원증액된 283.8조원으로새로편성하였다. 정부가마련한대책들이계획대로추진될경우 2009년재정적자규모는 21.8조원으로GDP 대비 2.1%가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투기지역 해제, 양도세감면, 전매제한완화등을추진하기로했다.

기존에발표된대책까지 포함하면경기 부양을 위해 총 33조원을투입하는셈이다. 정부는다양한경기활성화대책을통해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올라가고, 취업자 수도 7만 8만 명 증가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러나이대책은뚜렷한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양책은그규모면에서미국, 일본등주요국과비슷한수준이다. 그러나한국경제는수출비중이높아세계경제침체의영향이상대적으로크므로수출부진을보완하기위해서는다른나라보다 큰규모의내수부양이필요한상황이다.

금융위기의전세계적확산과실물경제로의빠른전이라는현상황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충격이다. 미증유의충격인 만큼과거의틀에구애받지말고과감하고신속하게, 그리고참신한 발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금융부문에 유동성이 돌아가도록공급함과동시에금융기관의자금중개기능을복원하여 가계및중소기업등이절실하게필요로하는자금을수혜받도록해야한다. 경기부양을위한충분한실탄을확보하여신속하게 필요한 부문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도 서둘러야 한다. 규제개혁, 감세, 성장동력발굴등을통해경제내의공급능력을확대하는것이그것이다. 이러한대책들은단기적으로는 경기 활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해줄것이다. CJ